

론설

공화국은 해외동포들의 참다운 어머니조국



5월 25일은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이며 민족의 영예인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 67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오래전부터 해외동포라고 하면 조국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뛰어나는 물방울로 비유되어왔다. 조국을 잃은 해외동포들의 력사는 제외없이 불행과 수난의 력사로 불려왔다.

조국의 운명이자 해외동포들의 운명이다. 나서자란 고향산천은 있어도 안겨갈 품이 없어 살길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 현해탄을 건너 이역방에서 갖은 천재와 멸시속에 시달리던 불쌍한 우리 해외동포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해외동포들에게는 영연히 안겨갈 참다운 조국, 존엄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동포들의 진정한 어머니조국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공화국은 해외교포운동이 나아가갈 길을 밝혀주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희망의 등대, 위대한 기지이다.

지난날 이역방에서 방황하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

던 해외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 있는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은혜로운 조국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해외교포운동의 갈피마다에는 매 시기, 매 단계를 넘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내용으로 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손길아래 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지켜주는 참다운 애국조국인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들이 결성되어 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직체계와 사업체계의 개선, 동포민족권한, 민족교육, 문화체육, 출판 등 모든 사업들에 속속들이 비쳐드는 향도의 빛발은 동포들에게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력사적

인 서한을 보내주시어 애국애족을 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워주시고 주제 88(1999)년 4월에 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총련사업을 강화발전시키러갈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는것은 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계기로 되었다.

해외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 피줄을 잇고 사는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 있는것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은혜로운 조국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해외교포운동의 갈피마다에는 매 시기, 매 단계를 넘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내용으로 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손길아래 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지켜주는 참다운 애국조국인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들이 결성되어 동포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조직체계와 사업체계의 개선, 동포민족권한, 민족교육, 문화체육, 출판 등 모든 사업들에 속속들이 비쳐드는 향도의 빛발은 동포들에게 진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력사적

화국은 자주적존엄과 국력을 떨치며 반만년민족사에 처음 보는 강성변영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드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속에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꽃피어나고 평등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천백배로 강해지는 나라, 남의 식, 남의 품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식의 발전방식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나라,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라게 비약하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공화국처럼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대한 힘으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같은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그토록 짧은 기간에 남들이 수식, 수백년을 두드고 이루지 못한 국가방위력강화의 기적적승리를 련이어 안아오시으로써 영연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부락을 누려가려는 우리 민족의 념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을 뼈부로 절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심장속에 더욱 억척으로 간직된것은 이 세상 천지가 열백번 변해도 우리 조국은 끄떡없으며 자주로 존엄높고 값없이 용성변영하는 공화국에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이다.

하기에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나는 조선사람이다!》고 소리높이 웨치며 가슴을 탁 펴고 살아가는 우리의 해외동포들이다.

공화국은 각계각층의 모든 해외동포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이다.

함께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때문에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이역에 사는 해외동포들을 위한 어머니조국의 사랑은 봄날의 따사로운 햇빛마냥 동포들의 얼어든 가슴을 녹여주고 운명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있다.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의 갈피 갈피마다에는 일본에서 사는 동포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헤아리시어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풍랑을 만난 귀국선의 무사도착을 위해 온갖 조치를 다라게 취해주신 이야기도 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해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계속 보내주도록 하고 동포들이 자연재해를 입을 때마다 사랑의 위문전금과 거액의 위문금을 보내주신 하해같은 은총에 목이 메어 동행복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품에 안겨 한때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오다가 어머니조국의 손길에 이끌려 방향전환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삶을 값있게 빛낸 해외동포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해외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며 뜨겁게 품어안아 조국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국가적행사에 참여시켜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신도 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을 해외동포들은 천만년세월이 흘러가도 영연히 잊지 못하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해외동포연외연호법이 채택된 소식이 해외동포들이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살고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지구상에 해외동포들은 많고많은데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존엄높고 긍지를 삶을 누려가는 우리의 해외동포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리영수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점점 더 엄중함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새로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윤석열대당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국방백서》에 뼈것이 명기하며 2022년 하반기부터 야외실기동훈련을 배합한 《한》미련합군사연습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핵전략사상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는것으로 《확장핵억제력》을 구축하는 한편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핵3축타격체계》라는것을 구축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윤석열은 집권하기 전부터 《북은 주적》, 《북선제타격》과 같은 망발들을 공공연히 웨치면서 대결광기를 부리었다. 이런 호전광기에 《대통령》버거지를 쓰기 바쁘게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며 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 것이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법외적책동도 국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공화국을 겨냥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동력항공포함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남조선호전세력과 북침전

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리고 있다.

현실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떨쳐일어날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이미 지난 세기 내외호전세력에 의해 한차례의 전쟁을 겪었으며 그로 하여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였다.

우리 겨레에게 영연히 아물수 없는 재앙의 상처를 입힌자들이 오늘 또다시 이 땅에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몰아오고있는 것이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분공화국의 악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야말로 민족의 안녕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오인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애국주의 애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오인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호전분공화국의 악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야말로 민족의 안녕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오인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애국주의 애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통일을 불러

인생말년을 련공애국, 통일에국의 길에 (5)

공화국을 찾아오는 최덕신의 걸음은 해가 바뀔수록 잦아졌다. 필수록 많은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실지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것을 보고 들었다.

방문회수가 늘어나고 방문대상이 많아질수록 그는 비록 사상과 리념, 체제는 달라도 그 땅에서도 한피줄을 나누는 우리 겨레가 살고있으며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려오던 리상사회가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였는가를 공화국의 생생한 현실속에서 터득하게 되었다.

최덕신은 인생의 말년에 찾은 진리를 자기만의 가슴속에 묻어둘수 없어 자기 생의 저력노을을 아침노을처럼 바라보며 짧은 시절의 그 기백을 되찾아 통일애국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미국에서 배당민족회 회장사업을 맡아보고있던 그는 《인종과 나》(1983년), 《남한땅에 30년》(1985년) 등의 책을 써내려 해외동포2세, 3세들에게 공화국의 참모습과 반동일적인 남조선정권자들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들을 통일위업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한편 그가 경영하는 배달신보사의 출판물들에서는 북남합작의 가능성과 현실성,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서와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정책과 령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편견과 불리해로 가득찬 해외동포들의 인식착오를 바로잡는 데서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통일을 위한 최덕신의 애국활동이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자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반동일세력의 음모와 모략은 우습게저졌다. 그의 주변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상사품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최덕신 선생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방문하는 그를 만나실적마다 해외에서 신문을 조심하라고, 각성을 높이라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시었다.

그러고 그의 건강을 념려하시어 전문병원에서 치료도 받게 해주시었다며 부인에게 오랜 기간 고치지 못한 병이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유능한 의료진을 불러 수술까지 받게 해주시었다.

최덕신이 70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을 때에는 해외망명객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몸소 생일상까지 차려주시기도 하시었다.

최덕신이 부인과 함께 공화국을 또다시 방문했던 1986년 8월중순 어느날이었다.

멀리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가 조국에 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대내외를 만나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최덕신의 건강상태부터 물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선생과 부인은 조국에 와서 사는것이 안전할것같다고 하시면서 겉에서 돌봐줄 소식들을 없애는 데 조국을 와서 사는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이미전부터 조국에 와서 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선뜻 자기의 절절한 희망을 표현할수 없었던 최덕신은 수령님께 고마움의 인

사를 삼가 드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생각을 잘하라고, 우리 서로 도우면서 친형제처럼 살아가라고 하시면서 선생이 해외에 있을 때에도 조국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으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하여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면 더없이 기쁘셨는데 대하여 고사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선생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한몫을 맡아할 때이라고, 그렇기때문에 나는 선생과 손을 잡고 우리가 지난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던 그 애국정신과 선전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그 의지를 이어 받아 애국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후대들에게 통일독립되고 부강한 조국을 반드시 물려주려고 한다고 고사하시었다.

본사기자

이날 최덕신은 위대한 수령님께 앞으로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동무라고 불러주시기를 청드렸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그런가고, 뜻을 같이하는 동무,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면서 최덕신동무, 우리 함께 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길에서 생사를 같이합시다라고 교시하시었다.

가슴속에 지닌 통일애국의 뜻을 이를 길을 찾지 못해 오랜 세월 방황하던 최덕신은 마침내 인생말년에야 그 뜻을 꽃피울 품을 찾게 되었으며 그 품에 삶의 영연한 뿌리를 내리었다.

공화국에서의 영주는 최덕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공화국에서는 그에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중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소년연맹회 회장직의 나르니 중임을 맡겨주었다.

그 믿음은 안고 그는 통일위업에 온 힘을 다 바쳤다.

본사기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파쇼 《정권》을 무너뜨린 4월인민봉기

외세의 식민지파쇼통치가 벗어낸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에 들어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투쟁에 떨쳐나섰다.

그 도화선으로 된것이 리승만독재 《정권》이 인과쇄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날조해낸 3.15부정선거였다.

1960년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3.15부정선거를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섰다. 리승만은 온갖 레토와 협박을 감행하여 자기의 《대통령당선》을 날조하였으며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를 폭발시켰다.

투쟁의 불길은 마산에서부터 타올랐다.

협잡선거의 더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을 참지 못한 경상남도 마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협잡선거를 물리치고 공명선거 실시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살인적인 군경이 총탄과 최루

탄을 마구 발사하는 속에서도 투쟁은 날로 더욱 확대되어갔다.

4월 11일 마산안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무참히 학살한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투쟁에 떨쳐나섰다.

마산봉기는 곧 서울과 남조선의 기타 도시들로 파급되어 전 인민적인 봉기로 발전하였다.

4월 18일 4500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마당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 100만학도의 총열기를 호소하였다. 그들은 호소문에서 《불의와 부정에 반기를 드는 투쟁성을 지닌 우리들 학도는 이이상 머물러있을수 없겠는가. 자유, 정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들 100만학도는 일어섰다. 력사가 우리에게 준 사명을 완수할 시기는 온것이다. 힘을 모아 민주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시위투쟁에 합세하였다.

시위투쟁에 나선 학생들은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맞서싸우면서 《국회의사당》앞까지 진출하여 통성투쟁에 들어갔다. 분노의 함성하늘을 찌르는 항쟁의 광장에서 4.19항쟁의 선봉이 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싸움에 떨쳐나선 자기들의 목적과 사명을 밝히고 투쟁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다짐한 《선언문》을 엄숙히 발표하였다.

투쟁의 선언이 메아리치듯 《국회의사당》앞으로는 련속투쟁대오들이 밀려들었다.

봉기자들은 외세의 식민지략탈기관과 《중앙청》도 습격하였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이 땅크까지 동원하여 봉기자들을 진압하려고 하였지만 봉기군중들은 굴함없이 싸웠다. 서울에서 봉기의 물결이 세차게 흘러갈 때 부산, 광주, 대구, 춘천,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대중적인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민족반역자 리승만을 때려부시자!》, 《백은 정치 물리치자!》 등 봉기군중이 터

쳐올린 투쟁의 함성은 온 남녘땅과 세계를 진감하였다.

남조선군의 일부 병사들도 병영을 박차고 거리에 나와 시위군중의 편에 서서 시위를 지원하였다.

4월인민봉기의 전 기간에 남조선 전 지역에서 523회의 투쟁이 벌어졌으며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수백만군중이 참가하였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에 의해 마침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외세의 주구가 되어 민족분열과 정화를 위한 범죄적인 《단선단정》책동에 앞장서고 반동일파쇼악인 《보안법》을 조작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웨치는 의로운 인민들을 다치는대로 탄압학살해는 리승만은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해외로 출렁랑을 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4월인민봉기는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물리추제 후퇴물어놓았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운동사에 지울수 없는 한페이지를 새겼다.

본사기자 김영진

《초불정신을 계승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 끝장내자!》

— 남조선에서 《6.11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

남조선에서 나어난 두 녀학생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무참히 살해된지 20년이 되어가고 하면서 《효순, 미선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지금도 미군범죄는 계속 감행되고 오염된 미군기지정화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등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효순, 미선의 한을 풀어주는것은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가는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임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떠드는 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왔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등장 이후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더 불평등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주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자주와 평화통일, 환경, 민주주의도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알리는것이 6.11평화대회가 될것이다.》, 《민중의 초불정신을 계승하여 더이상 이 땅에서 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땅의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군기지들과 전쟁무기들,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설것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